

독일 :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이 독일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강하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 머리말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자국 또는 역내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구조적인 국제분업이 이루어지던 자유무역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며 수출 중심 국가들의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 내 최대 경제대국이자 대표적인 수출 국가인 독일 또한 미국과 EU의 관세 강화 움직임을 경제적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는 수출에 의존하는 독일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므로 독일 노동시장에도 실질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기존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미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관철시킨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독일에 큰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EU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 조치의 양상과 EU-메르코수르(Mercosur)²⁾ 자유무역협정이 독일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1) Tagesschau, "EU-Handelspolitik: Zölle-Trumps Lieblingswort und Brüssels Problem", 2024.12.26.

2)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된 메르코수르 경제공동체는 약 2억 6천만 명의 인구나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 글로벌 경제 내 확산되는 보호무역 조치

독일은 미국, 중국 모두와 무역관계 의존도가 높아 미중 긴장관계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무역량의 절반 이상이 EU 회원국을 상대로 이루어져 EU의 관세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공연하게 예고해 온 관세 부과 조치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우려되는 무역갈등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경제의 위기론을 키우고 있다.³⁾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 예고

독일은 EU에 이어 둘째로 중요한 무역파트너인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큰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관세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관세 부과 대상으로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어 온 국가들”을 겨냥했다. 독일은 미국을 상대로 가장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ifo연구소(ifo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관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독일의 수출량이 최대 15%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독일 노동시장의 안정성도 위협한다. 현재 독일 내 약 120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제약산업은 미국 수출의존도가 높아 독일 내 일자리의 28%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다. 독일의 주요 산업인 기계 제조업,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또한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⁵⁾ 그중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유럽 전역의 공장 및 부품공급업체와

3) Tagesschau, “Zölle und Subventionen: Wohin der Protektionismus im Welthandel führt”, 2024.11.1.

4) Frankfurter Rundschau, “Was Deutschland unter der Trump-Regierung bevorsteht”, 2025.1.16.

5) Süddeutsche Zeitung, “Weltwirtschaft: Trumps Zölle könnten 300,000 deutsche Jobs vernichten”, 2025.1.14.

깊이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 산업이 공격받을 경우 유럽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독일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가 실현될 경우 독일에서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⁶⁾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에도 수입 자동차에 대한 처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 시행된 바는 없었던 만큼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조치

독일은 EU와 미국에 이어 셋째로 중요한 무역파트너인 중국 시장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EU는 2024년 10월 말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 현행 10%의 기본 관세에 더해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독일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타격을 우려해 EU의 추가 관세 조치에 반대했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저지로 의사를 관철하지 못했다. 독일은 중국이 EU의 관세정책에 보복 관세 등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에서는 독일의 주요 수출품인 대형 엔진을 장착한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⁷⁾

■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체결

새로운 무역파트너 탐색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자 독일은 EU가 남미공동시장을 개척해 새로운 무역파트너 및 원자재 공급국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6) Tagesschau, "Zehntausende Stellen in Gefahr?: Trumps Zollpläne bedrohen deutsche Arbeitsplätze", 2025.1.15.

7) Tagesschau, "E-Autos aus China: Zusatzzölle und ein bisschen Hoffnung", 2024.10.30. 이 조치는 중국이 보조금을 통한 인위적 가격인하로 유럽시장 내 자국 생산 전기차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명분으로 채택되었다.

중국과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려는 것으로, 남미 시장에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EU의 입지를 회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남미 지역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등 지속가능한 기술 확장에 필요한 원자재가 다량 매장되어 있어 유럽에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EU와 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은 전 세계 GDP의 25%와 7억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거대 단일시장 형성으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⁸⁾

협상 진행과정

EU와 메르코수르는 이미 1995년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⁹⁾을 체결해 시장 개방의 기초를 마련했으나 이후 자유무역협정 최종 합의까지 여러 차례의 협상 라운드에서 난관을 겪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은 메르코수르 국가의 낮은 환경기준과 노동조건이 EU의 농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정을 반대해 왔다. 메르코수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내세우는 점 또한 합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고기와 에탄올 등 일부 품목과 브라질의 아마존 환경보존 정책에 대한 이견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자유무역협정 내용 중 무역적 협력에 대해 2019년 6월 28일 합의에 도달했으나 정치적 협력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협상 최종 타결

주요 합의 내용

2024년 12월 6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와 메르코수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정치적 협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 약 25년에 걸친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알렸다.¹⁰⁾

8) Tagesschau, “EU-Abkommen mit Mercosur-Staaten Zu viel Widerstand gegen Freihandel?”, 2024.12.5.

9) 1999년 발효되었다.

10) Tagesschau, “Freihandelszone: EU einigt sich mit Mercosur-Staaten”, 2024.12.6.

이로써 EU와 남미 국가들은 거대 경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관세를 대폭 철폐해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EU는 메르코수르로부터 농·축·수산물, 메르코수르는 EU로부터 공산품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협정에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양 지역 간의 전반적인 경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협정은 이 외에도 노동, 환경, 기후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정을 두고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산림 파괴 방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협정 당사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및 기타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파리기후협약을 포함한 다자간 환경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협약상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협정이 유럽 기업들에 연간 약 40억 유로의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¹⁾

EU 내 엇갈린 반응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서 EU 회원국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협정을 지지해 온 독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 유럽의 경제 강화와 가치 수호에 기여해 더 큰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정 체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농업 분야의 경쟁 심화와 환경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EU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 EU의 엄격한 식품안전기준과 광범위한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과 약 6만 500개의 유럽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는 점을 근거로 협정으로 얻는 전체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IW)의 위르겐 마테스 국제경제정책 부장은 “유럽의 지정학적 및 산업적 이익이 농업 이익에 의해 인질로 잡히고 있다.”라며 EU가 프랑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 더 이상 잠재적 무역파트너를 찾는 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잠재적 무역파트너의 위협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의견이다.¹²⁾

11) Europäische Kommission, “EU und Mercosur erzielen politische Einigung über wegweisende Partnerschaft”, 2024.12.6.

12) Tagesschau, “Pläne mit Mercosur-Staaten: Was das Freihandelsabkommen für die EU bedeutet”, 2024.12.6.

앞으로의 비준 절차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은 이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EU의 24개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 EU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된다. 이들이 동의하면 모든 EU 회원국의 국가 의회 승인을 통한 비준 절차가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국가들의 의회 비준이 협정 발효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¹³⁾

■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이 독일에 미치는 영향

독일은 EU-메르코수르의 무역장벽 완화를 지지하며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독일 경제와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아래에서는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이번 협정이 독일의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공동연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¹⁴⁾

경제 성장 효과

EU 회원국 중 독일은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 다른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남미공동시장의 무역 관계는 산업 분야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데, EU의 수출품목은 주로 기계, 화학, 자동차 등 독일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은 EU 내 메르코수르로의 주요 수출국이며, 메르코수르가 EU로 수출하는 농업 및 광업의 1차 생산품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위 연구에서는 협정 발효 16년이 지나면 독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0.3%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13) Handelsblatt, “EU-Handelspolitik: Frankreich vereint sich im Kampf gegen den Mercosur-Deal”, 2024.11.25.

1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1), “Die Auswirkungen des Mercosur-Abkommens auf den Arbeitsmarkt und die Wirtschaft”, <https://www.bmas.de/> (2025.1.19).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노동시장및직업연구소(IAB), 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및 경제구조연구회(GWS)이다.

노동시장에의 영향

독일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서 국제 무역파트너 간의 시장 개방은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위 연구에서는 협정 발효 16년 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추가적으로 6만 명 이상의 노동 수요가 발생하고, 개선된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공급도 3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⁵⁾ 또한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므로 실업자 수는 3만 명 이상 감소하게 된다.

한편 직업별로는 모든 직업군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수출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 제조업 및 자동차 산업의 직업군 이외에도 IT 및 정보 서비스, 법률 및 세무 자문, 경영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 분야도 간접적인 경제 성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별로는 자동차 산업 등 수출 지향적인 산업이 중심이 되는 슈투트가르트, 뮌헨, 하노버 등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며, 경영 및 IT 관련 직종의 수요 증가는 베를린 지역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맺음말

EU와 남미공동시장은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자 한다. 남미 시장에서의 수출 증대는 독일 경제와 노동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수출 중심 국가로서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여전히 기능한다는 증거가 되기를 희망하며, 프랑스 등 협정 반대 국가들의 농업 주권 주장과 메르코수르 국가의 환경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협정 발효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추후 EU 회원국의 비준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는 주요국들이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15) 이 자료의 분석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전문인력 모니터링(Fachkräftemonitoring)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문인력 예측을 위한 분석 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